

인사 말씀

'26. 9. 4. (금) 14:00

금 융 위 원 장
이 억 원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오늘은 강원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본격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함께 뜻을 모아주신

우상호 강원도지사님,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님,

진옥동 신한금융그룹회장님, 정상혁 신한은행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II. 복합지원의 의의와 한계

금융위는 금융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합니다.

복합적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금융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제 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과 고용, 복지, 주거, 법률, 정신건강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복합지원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재기를 지원하는 금융입니다.

과거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다양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지금은 전국 50여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단 한 번의 방문만으로 원스톱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복합지원 개시 이후 ‘26년 상반기까지
약 32만명께 금융과 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비스를 원하더라도 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워
제도적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서울에는 6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면적이 약 30배나 넓은 강원 지역의 센터는 4곳에 불과하며,
서울 대비 강원의 인구 비중은 약 16%인데
‘26년 상반기 강원 지역 복합지원 연계자 수는
서울의 10% 수준*입니다.

* (인구/복합지원 연계자 수, ‘26.上) 서울 : 929만명/1.9만명, 강원 : 150만명/1.9천명

Ⅲ. 강원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추진

지역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금융위원회도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복합지원의 혜택을 온전히, 더 세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부산, 광주, 전북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강원 차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의 복합지원 체계와 민간 제도권 금융을
한 공간에서 아우를 수 있는
강원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가 조속히 구축되고,
단순한 공간적 결합을 넘어, 지역 내 복합지원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등 특화 금융상품이
개발·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해답은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 공직자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도청에서 생생한 현장의 수요를 세밀하게 짚어 주신다면, 센터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관기관들이 일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께 기본적인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에 적극 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지역 금융창구 역할을 해온 강원은행의 역사를 이어받은 만큼 도내 취약계층의 재기와 도민의 가려움을 긁어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IV. 마무리 말씀

금융위원회는 복합지원이라는 희망사다리를 통해 강원 지역 내 서민·취약계층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강원을 비롯해 광주,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도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구축을 추진 중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는 훌륭한 모범사례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관계기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